

## 같이 보기

: 근로자 건강백서

남녀불문 누구나 설레게 하는 마법의 주문이 있다. 바로 택배 배송 소식이다. '땡땡'하는 소리와 함께 도착한 박스를 보고 있노라면 잠도 달아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택배 종사자의 과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월간『산업보건』 3월호에서는 택배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건강보호 가이드를 전한다.

글 편집실

# 택배 종사자를 위한 건강보호 가이드



일상을 넘어 필수가 된 온라인 쇼핑과 택배 배송은 고객 편의라는 이름 아래 계속 진화해 이제는 '당일 배송', '충알 배송'으로도 불린다. 더 싸고, 더 빠르게 진화한 택배 서비스는 우리를 편하게 해준 만큼, 택배 기사의 근로환경에 큰 불을 지폈다.

그동안 근로자가 아닌 '1인 사업자'의 성격을 지녔던 택배 종사자들은, 적정 작업 기준이 없었던 터라, 자신에게 할당된 물량을 그날 모두 배송해야만 했다. 택배산업은 2000년 연간 배송 물량이 1억개에서 지난해 33억개를 넘어서며 20년 사이 약 33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고스란히 택배 기사의 과로로 이어졌으며, 결국 지난해 택배 종사자 중 10명 이상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행히 최근 택배산업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택배 종사자의 업무(분류·집화·배송) 중 과로를 유발하는 분류 작업을 떼어내기로 하는 1차 사회

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택배 3사(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는 2월 4일 택배 분류 작업을 위한 인력 6,000명을 투입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근로 환경은 조금이나마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택배산업의 당사자들 간 추가적인 논의와 합의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도 있는 만큼 걸어가야 할 길은 멀다.

또한 택배 작업의 특성상 상자를 수취·분류·배송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정적 자세, 강한 노동 강도, 불충분한 휴식 등을 유발하여 근골격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택배 종사자 개인의 건강보호 의식도 중요하다.

월간『산업보건』에서는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해 택배산업을 둘러싼 정부 대책과 함께 택배 작업 별 안전보건 점검 가이드를 소개한다. 🍷

# 월간 산업보건에서 소개하는 배달 종사자를 위한 작업 가이드



##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대책

- ▶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 규정
- ▶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권고
- ▶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작업 확산
- ▶ 과로방지 작업체계 구축 및 공정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 ▶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신설
- ▶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공유형 택배분류장 30개소 이상 확충
- ▶ 분류인력 확충, 적정 배송수수료 지급 위한 택배가격 구조 개선

출처: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 택배 종사자의 안전보건 점검 가이드

작업	예방대책
상·하차 및 차량 운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차 시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시동키 빼 놓기</li> <li>- 상·하차 작업장 바닥 및 접안부 안전여부 확인하기</li> <li>- 적재함에 화물 적재 시 하역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적재하기</li> <li>- 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기</li> <li>- 적재함에 탑승 시 필요한 보호구(안전화 등) 착용하기</li> <li>- 화물 상차 및 하역 구역에 다른 차량의 교통 여부 확인하기</li> <li>- 장시간 운전하는 작업 특성을 고려한 보호장비 착용(밴드, 아대 등)</li> </ul>
집하· 배송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의 특성에 따른 취급방법과 작업절차 마련</li> <li>- 화물의 특성에 따른 인력 운반방법 준수</li> <li>- 적정 중량 운반하기(권장: 남 25kg, 여 20kg)</li> <li>- 집하·운송 작업 시 적절한 이동 도구 사용하기</li> <li>- 작업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하기</li> <li>- 작업 중 짧게 쉬는 시간 갖기</li> <li>- 탈수 방지를 위한 수분 섭취하기</li> </ul>